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내게 나오라

작성일 : 2010. 3. 2. (화) 02시 28분 경

작성자 : 심주영 전도사 (서울희망교회 대학부)

(2010년 3월 2일 새벽 2시경, 예수님과 마음의 대화중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며 섭리사 사람들의 사랑이 식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첫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의 첫사랑 주 예수이다.

나의 사랑들아.

눈이 시리게 바라보며 눈물 흘려도

내 눈에 넣어두고만 싶은 내 사랑이들.

내 이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아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였다.

너희의 첫사랑은 육적으로 처음 눈뜨는 그 사랑이 아니다.

바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나를 믿고 사랑했던 그 때가

나와 첫사랑을 맺었을 때니라.

너희는 그때를 기억하느냐?

첫사랑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는 어떠한 자냐하면

바로 나를 처음 만나 가장 쥘했던 그 때.

말씀을 듣고 온 몸에 전율을 느끼며 감동 받았던 그 때.

나를 정말 좋아하며 목숨 바쳐 이 길 가겠다고 결심했던
그 때.

그 때의 삶을 지금도 사는 자가

바로 첫사랑을 유지하는 자니라.

‘나는 이러한 때가 없었는데...’ 생각하느냐?

정말 나와 첫사랑을 맺어야 하는 자도 있고,

맺었는데 너희가 잊어 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

이러니 내 마음 어떠하겠느냐?

서로 사랑만 하고 살아도 아까운 이 때,

특히나 더욱 시간이 촉박한 이때에

내가 보기에 부족한 너희의 사랑마저

식어가는 모습을 보는 나는 어떠할지 생각해 보았느냐?

이리 애타는 마음의 이유는

이 사랑, 회복되고 지속 되는 뜨거운 사랑 없이는

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거라.
머리가 좋지 않은 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최고 일류대학에 갔다 하자.
그 곳에서 그 지식의 한계로 아마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와 같이 천국의 세계도
여기서, 이 지구세상에서
나와 통하고 사랑을 경험했던 자들이
천국의 세계에서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다.
사랑의 수준이 되지 못하면
그 한계에 부딪혀 버틸 수 없기에
수준대로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수준에 맞는 삶이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 삶이지 않느냐?
그처럼 천하만국의 통솔자인 성삼위가
어련히 알고서 영계의 세계를 마련했겠느냐.

사랑이다.
사랑이 핵심이다.
그러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세위
사랑의 역사를 펴며 사랑의 말씀 전하며
사랑으로 통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며
사랑의 결정체,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내 사랑들아.
이러한 사랑의 법칙과 영계의 실상을 알고
제발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내게 나오라.
너무 많이 식어 있도다.
세상이 아니라 섭리사 너희 내 사랑들 말이다.
사랑. 사랑.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니 이제 무더졌느냐.
내가 너무 많이 사랑주니 이 정도만 해도
내 사랑으로 다 된다는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게냐.

그 마음 모두 내 사랑 식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니
너희는 정신, 영혼, 사랑의 감각 모두 깨워
내게 나아올지어다.
내, 깨어난 너희 모두를 사랑으로 받겠으니
부지런히 행하여라.
사랑한다. 사랑해.

-나 주 예수가-

